판화 미술의 현재와 미래

광주현대판화가협회 정기전…30일까지 우제길 미술관

광주현대판화가협회(회장 안진성) 22회 정기전이 30일까지 우제길 미술관에서 열린다.

'판화미술의 미래와 제시'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전시회에서는 전통적인 목판화를 비롯해 디지털 프린트, 석판화 등 다양한 양식과 새로운 조형세계를 탐색한 작품들이 선보인다.

참여 작가는 김보람 김익모 김자이 박구환 박민경 박선주 서정봉 송숙남 송안나 안영찬 안진성 우제길 윤희경 이영민 임병중 장원석 장호현 전병준 정 선 조영하 조환채 표인부 허정아 홍지애 씨 등이다.

광주현대판화가협회는 지난 1985년 창립전을 갖고 지난 20여년 동안 광주는 물론 대구지역 등과 교류전을 꾸준히 갖는등 지역판화 발전을 이끌어 오고 있다. 문의 062-224-6601.

안진성 작 '비밀의 정원'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민족문학작가회의 새 이름 '한국작가회의'로 가닥

내달 8일 총회서 결정

국내 대표적인 진보성향 문인단체인 민족문학작가회의(이하 작가회의)의 새 이름이 '한국작가회의'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25일 전해졌다.

작가회의의 한 관계자는 "전국 회원들을 대상으로 새 명칭에 대한 선호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작가회의'라는 응답이 압도적으로 많았다"고 말했다.

작가회의는 지난 5월 회원들의 의견을 수렴, 단체명을 변경을 추진해 왔으며 최근 '한국작가회의', '작가회의', 기타의견 등 세가지 명칭에 대한 선호도 조사를 벌였다. 이 관계자는 "'한국'이라는 명칭은 여러 지역 작가들의 색깔을 모두 포괄할 수 있는 매우 적합한 용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조사 결과에 대한 공식 집계는 아직 나오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번 명칭 변경은 '민족(national)'이라는 용어 때문에 해외에서 과격한 우파 단체로 오해를 산다는 지적이 회원들 사이에서 제기돼온데 따른 것이다.

특히 한국문학이 점점 세계문학을 추구하는 현실에서 굳이 '민족문학'이라는 깃발을 내걸고 스스로 창작활동의 범위를 좁힐 필요가 있겠느냐는 의견도 꾸준히 나왔다.

작가회의는 내달 8일 서울 대한출판문화회관 대강당에서 전국 회원들이 참여하는 총회를 열고 명칭 변경에 대한 안건을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새 단체명에 관한 회원들의 의견 수집 결과도 이날 함께 발표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광주미술상 수상작가 공모

내달 10일까지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위원장 황영성)는 제13회 광주미술상 수상작가를 공모한다.

광주 전남에 연고를 두고 있는 30세 이상 45세 미만 작가는 누구나 지원할 수 있다. 응모 희망자는 포트폴리오 10장을 26일부터 12월 10일까지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 사무국으로 제출해야 한다.

작가 본인도 응모할 수 있으며, 제3자 추천, 운영위원 추천도 가능하다. 수상자는 12월 20일 광주미술상 운영위원회 총회에서 결정된다. 상금은 500만원.

광주미술상은 지난 1995년 광주·전남에 연고를 둔 원로, 중견 미술인들이 후배 작가들의 창작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제정, 운영하고 있는 상이다. 문의 010-6296-1643.

/윤영기기자 penfoot@kwangju.co.kr

올 가을 음반계 음악영화의 반란

음악, 영화와의 행복한 만남

'포 미니츠' '원스' OST '대박'

클래식 주테마 '전도사'역할

60년 동안 교도소에서 여자 죄수들에게 피아노를 가르쳐온 실제 인물 크뢰거를 주인공으로 한 영화 '포 미니츠'에는 아름다운 클래식 선율이 흐른다

카메라가 교도소로 들어가는 피아노를 비출 때 흐르던 모차르트의 '피아노 소나타 KV 332.2', 크뢰거 선생이 슬픈 얼굴로 연주하던 슈베르트의 '즉흥곡 2번 D935' 등.

영화 '포 미니츠'는 당초 음반 발매 계획이 없었다. 하지만 영화를 본 관객들의 요청으로 뒤늦게 음반을 출시했다.

'음악과 영화의 행복한 만남'

올 가을엔 그 어느 때보다 아름다운 음악 영화가 관객들에게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영화를 보고 난 관객들이 감흥을 간직하기 위해 OST 음반을 구입하면서 불황인 가요 시장과 달리 영화 음악 시장은 그 어느때보다 풍성하다. 특히 사람들이 어렵게 느끼는 클래식 음악이 주 테마인 영화도 많아 클래식 전도사 역할도 하고 있다.

애드 헤리스가 주연을 맡은 '카핑 베토벤'은 베토벤과 그의 악보를 옮기는 카피스트라는 가상 인물을 통해 베토벤의 삶을 들여다본 영화다. 특히 귀가 먼 베토벤이 카피스트의 도움을 받아 '합창교향곡'을 초연하는 장면은 압권이다.

OST에는 '합창교향곡'을 비롯해 베토벤의 '소나타 5번 작품 10', '피아노 소나타 32번 작품11' 등이 실려 있다.

'포 미니츠'에는 바하 등 클래식 음악뿐 아니라 앙테 포크가 작곡한 다양한 오리지널 곡들을 만날 수 있으며 특히 영화의 제목처럼, 마지막 장면에서 제니가 '4분'에 걸쳐 연주하는 마지막 곡에서는 깊은 감동을 느끼게 된다.

지난 22일 개봉한 '라 비앙 로즈'는 불멸의 샹송 가수 에디트 피아프의 삶을 그린 영화다. OST에는 '장밋빛 인생' '사랑의 찬가' '빠담 빠담' 등 에디트 피아프의 대표곡 11곡과 다른 샹송 가수의 곡 등 30여곡이 실려 있다.

'원스'

'포 미니츠'

'카핑 베토벤'

28일 개봉 예정인 '어거스트 러시' 역시 음악이 중요 역할을 하는 영화다. 부모의 반대로 헤어진 첼리스트와 기타리스트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 어거스트가 천재적인 기타 실력을 갖게 되면서 벌어지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OST에는 주인공 조나단 리스 마이어스가 직접 부르는 아름다운 록 발라드 'The times' 등 주옥같은 음악 15곡이 실려 있다.

최근 가장 화제가 되고 있는 영화 OST는 역시 '원스'다. 1억 5천만원으로 제작된 아일랜드 영화 '원스'는 거리에서 노래하는 '그'와 체코 이주자 '그녀'의 잔잔한 사랑 이야기를 음악으로 풀어낸 작품.

입소문만으로 전국 관객 16만명을 동원한 '원스'의 OST 판매량은 2만 5천장을 넘어서 '대박'을 터트리고 있다. 'If you want me' 등 실제 음악가인 두 주인공 글렌 한사드와 마르케타 이글로바가 직접 만들고 노래한 주옥같은 OST는 이 가을에 딱 어울리는 음악이다.

그밖에 영화는 아니지만 일본에서 클래식 붐을 일으켰던 드라마 '노다메 칸타빌레'의 음반 역시 클래식 초보자들에게는 쉽게 음악과 친해질 수 있는 기회다.

국내에서도 발매된 '노다메 칸타빌레 라이브 음반'(2CD)에는 주제가 격인 베토벤의 '교향곡 7번 1악장' 등이 실려 있다.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광주연극협회 '대학연극축제' 개최

젊은 예술가들 발굴…동신대학교 등 5팀 참가

광주 지역 극단들의 애로 사항 중 하나가 바로 젊은 피를 수혈하는 것이다. 여건이 어렵다 보니 연극에 정열을 쏟는 후배들을 모집하기가 만만치 않은 탓이다.

광주연극협회(회장 박규상)가 '제 1회 대학연극축제'를 개최하는 이유도 앞으로 우리 연극계를 이끌어갈 젊은 예술가들을 발굴하기 위해서다. 19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각 대학 동아리들이 자체 기획으로 합동 행사를 갖고는 했지만 구심점이 없어 지속되지 못했고 요즘 대학의 연극 동아리는 침체된 상태다.

연극협회는 기존에 열고 있는 청소년 연극제 등과 연계해 후배들이 연극에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면서 무대에 설 수 있는 기회를 꾸준히 제공해 줄 계획이다.

올해 행사는 27일부터 다음달 1일까지(오후 7시) 광주과학기술원 공연장에서 열린다. 첫 행사인 올해 축제에 참여하는 대학은 동신대학교 등 모두 5곳.

27일 첫 테이프를 끊는 동신대학교는 남자용 공중화장실을 배경으로 다양한 인간의 모습을 그린 이상우작 'W.C 비언소'를 무대에 올리며 광주교육대학교(28일)는 '제 10층'을 선보인다.

29일에는 전남대학교가 창고지기로 살고 있는 기임과 자앙이 주인공으로 등장하는 이강백 작 '북어 대가리'를, 조선대학교는 닐 사이먼의 희곡 '굿 닥터'를 공연한다. 호남대학교는(12월 1일)는 창작 뮤지컬 '사랑 이야기'를 무대에 올린다. 문의 062-523-7292.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박진현의 문화카페

소중한 미술관 망치지 말자

서울시 관악구 남현동 사당역 사거리에 가면 세월의 흔적이 고스란히 남아있는 석조건물이 눈에 띈다. 서울 시립미술관 남서울 분관(이하 남서울 분관)이다. 1905년 중구 회현동에 지하 1층, 지상 2층 붉은 색 벽돌로 지어진 이 건물은 원래 대한제국(1897~1910)주재 벨기에 영사관이었다. 지난 1983년 도심재개발사업으로 지금의 남현동으로 옮겨진 후 문화재청 전문위원들의 고증을 거쳐 복원됐다. 이후 20여 년간 우리은행의 사료관으로 쓰이다 지난 2004년 5월 기업의 문화예술지원사업의 일환으로 서울시에 5년간 무상임대됐다. 서울시는 건물의 활용방안을 놓고 고민한 끝에 현대미술작품을 주로 전시하는 공공미술관으로 개관했다.

남서울 분관의 최대 수혜자는 인근 주민들이었다. 잡초만 무성한 건물에 눈길조차 주지 않았던 주민들은 눈 깜짝 할 사이에 변신한 도심 속 미술관을 보고 입을 다물지 못했다. 미술관 주변에 늘어서 있는 조각상들은 과천 국립 현대미술관에서도 볼 수 없는 진귀한 작품들이었던 것이다.

무엇보다 주민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 건 전시장 내부였다. 덩치 큰 소공동 시립미술관 본관과 달리 옛 벨기에 영사관을 리모델링한 아기자기한 전시장은 친근한 동네 사랑방을 연상케 했다. 여기에 현대미술 전시관과 체험학습장을 표방한 컨셉은 '작지만 색깔 있는 미술관'이란 경쟁력을 부여했다. 개관 3년 만에 남서울 분관은 주말이면 하루 300~400명이 찾는 명소로 떠올랐다.

요즘 광주시 서구 농성동에 위치한 옛 전남지사 공관의 컨셉을 둘러싸고 물밑논쟁이 한창이다. 이 공관은 다목적 전시관으로 활용하기로 한 광주시의 방침에 따라 내년 4월 개관을 목표로 현재 리모델링중에 있다. 말이 다목적 전시관이지 광주 시립미술관이 위탁운영 할 예정이어서 지역 미술계는 시립미술관 농성동 분관으로 여기고 있다.

그런데 최근 광주시가 다목적 전시관이란 애매모호한 컨셉을 이용해 학계의 검증도 거치지 않은 모 역사화가의 작품을 비롯 공예품, 서화, 유물 등을 상설 전시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만약 이 같은 구상이 현실화된다면 이 공관의 활용가치를 떨어뜨리는 근시안적인 처사가 아닐 수 없다. 특정 작가의 작품을 상설 전시할 경우 공립미술관이 개인미술관으로 변질될 소지가 있는 데다 종합선물세트 식의 전시관은 국립 광주박물관이나 시립미술관 본관의 아류(亞流)밖에 안되기 때문이다.

모처럼 광주시민의 품으로 되돌아온 옛 전남지사 공관이 또 하나의 문화명소가 되려면 다른 곳에서는 보기 힘든 차별화된 콘텐츠를 제공해야 한다. 다목적 전시관이란 말대로 이것 저것 다 챙기려다 보면 하나도 제대로 보여주지 못하는 우를 범할 수 있다. 전남지사 공관이 시립미술관 농성동 분관이어야 하는 이유다.

〈문화생활부장 jhpark@kwangju.co.kr〉

대인동삼일부동산
☎(代)223-1140, 핸011-602-2532
(광주은행 신본점옆, 대인동 소방서건너편)

모텔 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을 빨리 팔고 싶으시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으로 오십시오.
저희 부동산은 오래도록 광주시내권 및 시외손님으로 모텔·목욕탕 및 각종 상가건물 사실분과 얻으실 분 손님을 많이 확보하고 있습니다.
사장님께서 소유하고 계신 건물을 팔거나 임대를 내놓고 싶으시면 저희 부동산에서 빠르고 정확하게 일해 드리겠습니다.
다만, 사장님께서 저희 부동산에 내놓으신 소중한 건물은 철저하게 비밀보장하여 조용히 팔아드리겠습니다.

일가공인중개사
☎(代)234-8216 핸011-609-0896
(광주우체국부근)

상가건물 매매
·충장로 대지 75평 5층건물 2억/1,700만 21억
·금남로 문화전당옆 대로변 5층 1억5천/900만 20억
·전대후문 대로변 75평 3층 8천만/800만 16억
·학동 15m×15m코너 대지 50평 5층 2천5백/270만 3억
·황금동 린턴약국근처 89평 2억/900만 20억
·광산구 구 도청옆 112평 단층건물 10억
·조대 대로변 대지 226평 단층 평당350만원
·금호동 종일아파트옆 대로점 330평 단층 당400만

토지매매
·문흥동 신라에식장앞 대로점 480평 당200만(전체전용권)
·주월동 장미아파트앞 대200평 당250만
·광·송간 공원전철역 옆 대로점 1,400평 당100만
·봉선동 25m 도로점 700평 당 300만
·금호동 아파트 밀집지역 인근800평 당200만
·운남동 삼성아파트 후문앞 코너 192평 당200만
·문흥동 개발제한구역 임야 1만평 당1만5천
·도천동 60m 도로개설중 옆 자연녹지 5천평, 2천평, 당65만
·선암동 호대앞 대로변 1,300평 당150만
·선암동 호대앞 1,000평 당90만
·지산동 녹지 1,100평 당 36만
·선교동 임야 4만원 당3만
·광산구 덕림동 관리지역 3,200평 당6만
·화순 도곡 임야(야산)3만평 당1만
·화순 도곡 관리지역 3천평 당6만
·화순 도곡온천 인근 관리지역 2만평 당10만
·화순 남면 계곡점 관리지역 6만평 당1만원
·담양읍 임야(묘지적합)2,700평 당6만

전원주택
·운림동 성촌부락 대지 160평 당130만
·운림동 녹지 340평 당80만
·운림동 대지 280평 당50만
·화순 남면 한옥 대지 200평 4,000만
·화순 남면 대지, 전 한옥750평 1억
·담양 창평 소재지 대지 700평 당30만

기타부동산
·화순 한천 급전저수지 위쪽 임야 6만6천평 당7천원
·화순 계곡점 임야 14만평 당4천원(임도개설, 가론수식재)
·화순 남면 계곡점 주택1동 3천평 당3만
·화순 남면 임야 3만평 당 5천원
·장흥 회진 바닷가점 황토주택 4천평 당10만
※광주인근 관리지역 임야, 전, 답 구함
※황토주택 동호인을 모십니다

현대공인중개사
☎(062)371-1900, 010-2006-0115
(상무 우리병원에서 50m 지점. www.85858949.co.kr)

전원주택용지 24필지 선착순 분양
(전문직에 종사하는 분들의 단체 분양 환영)
◉위 치 : 담양군 용면 추성리 산28번지 일대
◉분양면적 : 205평서 414평까지
◉분 양 가 : 상담 후 결정
◉본택지의 특성◉
1. 접근성이 용이함 - 동광주IC에서 30분거리
2. 정남향으로 단지를 배치하여 조망 및 일조권 확보
3. 주변의 레저 및 관광명소등이 근거리에 위치
(추월산, 담양리조트, 죽녹원, 담양호, 가마골 생태공원 등)
4. 투자가치가 높음

◀ 급히 구 합니다 ▶
◉그린벨트 농지 3,000평 구함
서구 남구 경지정리된 농지(대토용)
◉광산구 우산동 농지 구함-비행장 맞은편(약2,000평)
◉관리지역 토지 구함
(광산구 삼도동 본량동 관내농지 평수에 관계 없슴)
◉묘지구함 : 1,000평 이상
(함평나산 / 나주노안 봉황 금천 다도 / 장성)

저희 업소는 20년 가까운 중개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토지의 매매를 전문적으로 중개 합니다.
부동산 관련 직종의 전문가와 입지선정에서 준공까지 원스톱으로 컨설팅 하여 드립니다.
병원, 공장, 원룸, 식당, 모텔, 차고지, 전원주택 주유소및가스충전소 부지, 투자용토지, 상가건물

국민공인중개사
핸 011-635-7939, 010-3114-6103
(두암동 무등도서관사거리 농협맞은편 2층)

건 물
◉주월동 5억 병원의원매매
대165P 건150P 지상층층 즉시 입주가능
◉7억3천 빌딩 급매
호남대 부근 광산구 서봉동 대270P 건287P 보1억9천 월450만원
◉13억3천 빌딩 20×10m코너
전대 후문 대110P 건320P 보3억3천 월900만
◉12억점포 8칸 빌딩부지 30×6m코너
보증금 1억 월550만원 포함
◉13억고시원
대110P 건300P 룸80개 월세1,500만원
◉상업지역 13억 빌딩
대140P, 건510P 보증금 2억 월세850만원
◉17억5천 1층 점포 12칸 병원부지
보증금 1억5천 월750만원포함
아파트 7,000세대 상권
◉26억 상업지역 빌딩
대185P 건390P 보증금 5억 월1800만원
◉41억 상업지역 빌딩
대200P 건1,100P 보12억 월세2,000만원
◉47억 빌딩
대600P 건1000P 보10억 월세3000만원 융자20억 포함
◉120억 공장부지
공업지역 12,000P 현재 공장 운영중

주유소 전문중개
◉9억 주유소 급매
대800P 35m도로변
◉11억5천 시외 주유소
기사식당 카센타 포함 2000P 장사잘됨
◉13억5천 시내 주유소 급매
대400P 일매출 800만-900만원

병원부지 전문중개
◉360P P당 750만원
◉210P P당 900만원
◉550P P당 650만원

땅
◉정비 공장부지 600P
상업지역 35m 도로점 P당 270만원
◉수완지구 상업지역
240P P당650만 대로변
◉쌍암동 310P 상업지역
20m도로점 P당390만원
◉골프연습장 부지 8,000P
자연녹지 북구 P당 50만원
◉제1종주거지역 1,000P
P당100만원 20m도로점
◉담암 임야 15만P P당 1만원
◉관리지역 임야 7000P
담양 P당3만7천원 전입로 있음 경사도 15°
◉오피스텔부지 300P
전대후문에서 6~7분 도보 P당175만원
◉과수원 묘지가능 그린벨트 임야
1,800P 남향 경사도 15도미만 진입로 있음 삼성홈플러스에서 10분거리 P당4만원
◉동림동 생산녹지 800P 대지8억
◉담암 임야 25만P P당 3,000원
◉담암 관리지역 2000P
2차선 도로점 임야 P당 9만원
◉광산구 상동 관리지역 2000P P당 10만원
◉태양광발전소 부지 10억
보성 회천 25,000P 남향
◉대덕면 7,000P 3억7천 고속도로주변
◉골프연습장부지 3,000P
P당 120만원 30m 도로점
◉암자부지 2,700P P당 7만원
◉전원주택 화순읍 수만리 1,000P
3~4세 가능 P당 50만원
◉화순읍 연수원부지(장뇌삼재배중)
13만평 36억

공장 급매
각화동에서 10분 6억7천
대지1,400P 건물 500P

APT1800세대 마트겸 목욕탕
대120P 건270P 현재 주인직영중 매15억

급매 시외땅 180만P
• P당 4만원 목장용지 및 잡종지

21세기부동산컨설팅(주)
투자의 길을 아는 사람들 ☎(代) 525-0021, 친절상담 011-612-3421

경매 투자자 투자상담 환영!!
법원경매·공매에 투자하여 부동산 절반값에 산다~!!
1. 운천저수지 신축6층건물 긴급매매
대지:243평 건물:지상6층[신축건물] 병원,대형식당,노래방,카페,사무실로 이용가능한 건물임. 토지 바로 옆에 주변 아파트개발로 인하여 지가가 매우 오를 가능성이 매우 높은 지역이며 운천저수지 개발등으로 투자가치가 급상승할 곳이 틀림없는 곳임
감정원 감정가격:19억원
긴급매매가:14억원
2. 월산동 [구,남강호텔] 긴급 매각
대지:90평 건물:지하1층(유흥노래룸) 지상 8층:현, 모텔로 이용중임
월산동로타리 농협 비포뒷면~장봉터널간 도로변소재
사무실, 병원, 모텔, 임대용건물로 건물 리모델링 활용가능한 지역임
감정원 감정가 12억원
긴급매매가 8억5천만!
임대가격 : 최신시설로 리모델링 공사 후 모텔로 임대가능

현금투자 최요지
1. 황룡 유촌리 임야 4만평 골프장, 무인모텔, 펜션, 수련원 가능 토지 매대가 평당 3만원
2. 목포 신외항 인근토지 약 3천평 긴급매매가 평당 20만원
비다가 보이는 간척지용 토지임
3. 전원주택 신축부지 송정리 동곡가는 길 주거지역 480평 매대가 평당 30만원 전망좋은 토지 즉시 건물 신축가능

AAA급 깨끗한 건물 긴급 매각
1. 북동 롯데백화점건너편 도로변 대지50평 2층건물 매매가 2억5천 (은행대출 2억안고 매매가능)
2. 광암교4거리 주유소옆 건물5층 대지71평 임대용건물 회사사옥 사무실용도 적합, 동림2지구 개발 완료시 발전가능성이 높은지역 매매가 5억3천,주인사정상 긴급매매
3. 농성동 상공회의소 건너편 리모델링 완료된 4층건물 대지 150평 감정가 18억 긴급매매가 12억 임대 잘나가는 건물임

현금투자 최요지 긴급매매
1. 전대후문 도로변 건물6층 매각 전대후문 나악국 도로변 대지80평 건물 지하1층 문구점, PC방, 당구장, 사무실 등으로 이용중임 임대가 보장되는 건물임
2. 광천동 신세계백화점 건너편 상업지역 980평 긴급매매가 평당 400만원 오피스텔, 주상복합, 주차장용지 적합
3. 교회, 신축건물 부지 남구 진월동 광주대 입구 대지230평 매매가 평당 250만원 (주인 사정상 긴급매매)

2006년도 광주 남구지역 예식장 선호도!!(극장식 웨딩홀) 만족도!!(음식이 맛있기로 소문난) 1위업체선정!!
이젠 극장식 웨딩홀에서 결혼하자!!
센트럴시티웨딩컨벤션
10,11,12월 예식, 송년모임 예약접수중
•결혼, 회갑연, 칠순연, 돌잔치, 동창회모임, 각종 행사를 호텔뷔페식으로..
☎675-8500
(광주대학교 입구)